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8월

선교편지 제 155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필리핀은 한국 및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2021년 미국 농림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 국민 일인당 일년간 쌀 소비량은 133 Kg이고, 한국은 57Kg입니다. 즉, 필리핀인의 쌀 소비량이 한국인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동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현지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먹지만, 현지인들이 먹는 밥의 분량만큼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 이미 옛말이 되었지만, 이곳 현지인들은 말 그대로 정말 ‘밥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당마다 ‘밥을 무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손님을 끌기 위한 매우 유효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즉, 좋은 식당의 기준은 밥을 무한정 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이렇듯 현지인에게 있어서 ‘쌀 밥’은 단순히 먹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이며 삶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뿐만 아니라, ‘쌀’과 관련한 정부의 크고 작은 정책 변화와 가격 변동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과 직결된 ‘쌀’이 지난 20여년간 국제 정세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 날에는 그 어느 것 보다 필리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쌀 농사에 관해서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사계절 구분없이 연중 무덥고 습해서 쌀 농사를 하기 위한 최적화된 곳입니다.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농업인구 수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고, 경지면적도 여유로워서 1억이 넘는 필리핀 인구가 넉넉히 먹고도 남아, 쌀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루손’ 평야와 같은 곳은 1년에 2, 3모작이 아닌 4모작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모를 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추수를 할 수 있는 쌀 농사의 이상적인 곳으로 유명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쌀 농사 기술도 매우 발달하여 아시아의 농업 혁명을 주도했던 세계적인 ‘국제 미작 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가 필리핀에 있을 정도이며, 과거 우리 나라가 매우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안남미’를 무상으로 지원해주었던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쌀’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아시아의 베트남과 태국과 같은 나라로부터 필리핀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일년내내 수고하여 쌀 농사를 할 필요 없이, 이웃 국가에서 저렴한 쌀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경제의 주축을 이루었던 농업 인구가 2, 3차 산업으로 전환되어, 필리핀의 자체 쌀 생산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업화에 맞추어 농지가 타 용도로 전환되었고,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마침내 필리핀은 더 이상 풍요로운 쌀 수출국이 아닌,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제간의 거래가 그렇듯이 곡물도 기후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수급의 변동과 가격이 크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저렴했던 수입 쌀은 옛말이 되었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폭등했을 뿐만 아니라, 제 때에 필요한 만큼 구입할 수도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필리핀은 국제 수입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까닭에 '쌀 대란' 을 겪었습니다. 주식인 쌀을 구하지 못하여 온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통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쌀 값의 폭등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먹을 쌀을 구하지 못하여, 그야말로 굶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구책으로 쌀 공급을 식구 수에 따른 배급제로 변경하고,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의 양도 반으로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15년이나 지난 지금 또 다시 이곳 필리핀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간 확산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에너지와 식량 등 거의 모든 주요 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까닭에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모든 물가가 상승하여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금년 초에 치룬 선거로 당선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도 그 위중함을 잘 알아서, 매우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을 겸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온 국민에게,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시장 가격의 반 값 정도되는 정부미를 빈곤층을 대상으로 식구 수에 따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정부미를 공급받은 주민들은 자체 소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약간의 이익을 더 붙여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층은 정부미보다 더 열악한 식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궁핍함은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예배와 각종 모임 후 친교를 위해 이곳의 국민 빵이라고 할 수 있는 '반데살'과 같은 간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빵 가격이 예전의 두 배 이상으로 오른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번 주에 구입한 빵은 기존 크기의 2/3도 안되는 꼬마 반데살인 것을 발견하고 모든 교우들이 허탈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 12:5)



필리핀의 종교 분포는 전국민의 약 83%가 가톨릭, 5.4%가 개신교, 4.6%가 이슬람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민다나오 섬은 15%가 이슬람교), 그 외 20세기 초 '펠릭스 마날로' (Felix Y. Manalo)라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라며 시작한 필리핀 만의 신흥 종교인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Iglesia ni Cristo)가 약 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필리핀의 모든 국민이 유일신인 '하나님' 또는 '알라', 그리고 하나님을 유사하게 만들어 믿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이나 예배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문화와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절기가 되면 마치 온 국민이 성경 속의 한 장면에 살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예수님이 되고, 마리아가 되고, 또한 로마 병정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매우 강렬하게 표출하는 것으로 저들의 신앙심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정작 믿음의 본질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의식과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방적이고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뿐만 아니라 '제 3의 성 (Gender)'을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성 간의 관계와 결혼에 대해서도 외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처럼 외모를 꾸미고 남성 복장을 입고 다니는 '툼보이 (Tomboy)'들은 하루에도 주변에서 수 없이 만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잘 알려진 사설 경비 업체나 주유소에서는 이와 같은 톼보이만을 특채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톼보이와는 반대로 남자가 여자처럼 외모를 꾸미고 여성 복장을 하는 소위 '바클라 (Bakla)' 와 '실라히스 (Silahis)'의 특이한 모습도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클라 (Bakla)는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여 외모 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걸음까지도 여성스럽게 표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실라히스 (Silahis)는 자신이 여자인 동시에 남자라고 생각하는 더 복잡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서 동성 연애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있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인사도 이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든지 머리 형태와 옷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고스 예일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주 열심히 출석하며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현재 디고스 예일교회에는 세 명의 Tomboy '자매' (?)가 출석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자매의 어머니는 딸을 위해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다른 한 자매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아들'로 인식할 정도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감사하게도 한 교우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여 예배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외모로 보아 남자가 분명하여, 광고시간에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교우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Tomboy 여성이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의 한 청년은 오래 전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출석하며 공부하는 중에 대학을 마치고, 마침내 교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대학원에서 공부도 계속하였고, 이제는 젊은 나이에 디고스 내의 정부 기관 교육부에서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찬양을 잘하는 청년이고, 그의 누이와 어머니도 교회를 출석하는 등 매우 모범적인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있어서, 교회의 미래를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그의 어머니가 60세 생신을 맞이하여 많은 교우들이 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고, 저희 부부도 같이 참여하여 한마음으로 축하를 하며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특히 자녀들이 나와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결혼한 큰 딸이 나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께 감사를 표하고, 큰 딸 가족이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나와 축하 인사와 축가를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같은 또래의 다른 청년과 진한 애정 표현을 하며 가족들과 교우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머니 생신 때, '커밍아웃(Coming Out)'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곳 선교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창조 하셨는지조차 구분 못하는 혼돈의 세계관이 이 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과 혼돈의 영'이 가득 사로잡고 있는 곳입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 정체성'의 문제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로 들릴 때는 너무도 명확하고도 쉽게, 단정을 내리고, 정죄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 문제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때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는 교우들과 부족한 저를 밝히 일깨워 주셔서, 정결한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행 17:22-23)**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